

# 체포한 운전자 대신 음식 배달한 경찰



음식 배달에 나선 영국 경찰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3일 영국 버크셔주 우들리에서 운전자 한 명이 체포됐다. 고객이 주문한 케밥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던 이 운전자는 며칠 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인적사항을 속여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배달 도중 체포된 운전자는 면허증도 없었으며,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연행했다.



▲ 체포한 운전자 대신 경찰이 음식을 배달했다. 사진=웹즈 밸리 경찰 페이스북

그 사이, 고객이 주문한 케밥이 식어가고 있었다. 고민하던 경찰은 대신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주문자는 현관문 앞에서 있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음식 꾸러미를 건네받은 주문자는 자초지종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영국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배달 수요가 급증했다. 얼마 전에는 배달 음식만 먹다 급격하게 살이 쯤 영국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4년 배달앱 '저스트잇' (JustEat) 가입 후 체중이 불어난 제이슨 홀턴(30)은 5년간 집에 틀어박혀 온갖 배달 음식에 의존해 살았다. 결국 700파운드(약 317kg)까지 체중이 불어난 그는 소방대원 3명과 대형 크레인인 동원된 7시간의 구조작전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 벌집 제거하는 우주인?

미국 워싱턴주 농무부(WSDA)가 장수말벌 집 제거에 나섰다.

WSDA는 지난 24일 시애틀 북부도시 블레인의 숲에서 장수말벌 집 한 통을 제거했다. 이날 장수말벌 집 제거 작전에 들어간 곤충학자들은 마치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공청소기를 동원해 약 200마리에 가까운 장수말벌을 잡아들였다.

WSDA는 지난 8월 처음으로 장수말벌을 잡아 가두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WSDA의 장수말벌 퇴치 전략은 말벌을 산채로 잡은 후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후 장수말벌이 집으로 돌아가면 한꺼번에 이를 파괴하는 것으로 주 내에 1,300개의 덫을 설치한 것



▲ 보호장비를 착용한 곤충학자들이 장수말벌 집을 제거했다. 사진=유튜브(KING 5) 캡처

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처음 제거한 장수말벌 집 한 통도 이런 방식으로 제거됐다.

미국인들에게 아시아에서 온 외래종 말벌은 공포 그 자체다. 미국에서 '킬러 말벌'로 더 잘 알려진 아시아 거대말벌(Asian giant hornets)은 꿀벌들을 공격하기도 해 양봉업자들의 적이며, 개체수가 많아지면 토종벌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약 6mm에 이르는 독침은 방호복을 뚫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쏘이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한 해 50명 정도가 장수말벌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이에 미국 땅에서 처음 장수말벌이 발견된 워싱턴주는 바짝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엔 첫 결실을 보게 됐다.

# 청년 유혹하는 시골 마을



▲ 산토스테파노디세사니오 마을 모습. 사진=유튜브(Piccola Italia) 캡처

인구 감소로 고민에 빠진 이탈리아의 한 마을이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이주 조건을 내걸었다.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주에 위치한 산토스테파노디세사니오(Santo Stefano di Sessanio) 마을은 지난 15일부터 이주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다.

마을은 이주민 10명(혹은 5커플)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불과 열흘 만에 신청자는 1,500명을 돌파했다.

마을 관계자는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 조건은 파격적이다. 선정된 이주민에게는 관광가이드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3년간 해마다 연봉 8,000유로(약 9,500달러) 지급한다. 창업을 원한다면 최고 2만 유로까지 사업자금도 지원한다. 또 '상징적 금액'만 받고 이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원 자격엔 제한이 있다. 4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최소한 5년 이 마을에 거주해야 한다.

이 마을은 로마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여름 휴양지로도 널리 알려져 찾는 관광객도 적지 않지만 인구가 감소해 마을 주민은 현재 모두 115명, 이 가운데 절반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노인들이다.

이 마을은 2019년 영국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